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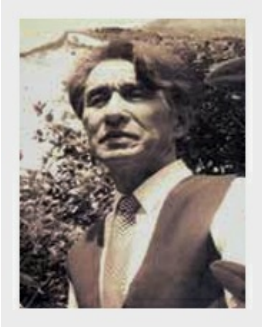
GANGJIN 

Web Contents



목차

| | |
|-----------------|---|
| 목차 | 2 |
| 시인소개 | 3 |
| 석정(夕汀) 신석정(辛錫正) | 3 |



석정(夕汀) 신석정(辛錫正)

석정(夕汀) 신석정(辛錫正, 1907. 7. 7~1974. 7. 6)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동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전신인 불교전문강원 국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31년 10월 『시문학』 제3호에 참여하면서 작품 활동을 본격화, 그해에 「선물」, 「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 등을 발표했고, 계속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봄의 유혹」, 「어느 작은 풍경」 등 목가적인 서정시를 발표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굳혔다.

8.15 광복 후에는 시작과 후진양성에 전념했으며, 저서로는 초기의 주옥같은 전원시를 묶은 제1시집 『촛불』(1939)과 8.15 광복 전의 작품을 묶은 제2시집 『슬픈 목가』(1947), 이어 『빙하』, 『산의 序曲』, 『대바람 소리』 등의 시집을 간행했다. 그의 시풍은 잔잔한 전원적인 정서를 음악적인 리듬에 담아 노래하는 게 특색인데, 그 맑은 시정은 읽는 이의 마음까지 순화시키는 감동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GANGJIN

Web Contents

